

조선통신사

한반도와 일본 사이에는 오래전부터 정치적, 상업적으로 강한 유대관계가 있었으며, 조선 왕조 시대(1392~1897)에 이르러서는 이러한 관계가 보다 공식화되었습니다. 조선 국왕은 우호와 통상을 돈독히 하기 위해 일본의 무사 정권에 정기적으로 사절을 보냈고, 쓰시마를 통치했던 소 씨 일족과 특히 자주 교류했습니다. 그러나 1590 년대에 도요토미 히데요시(1537~1598)의 조선 출병이 발발하며 소 씨 일족도 이에 동참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 관계는 단절되었습니다.

쓰시마의 경제는 원래 해외무역에 크게 의존하고 있었기에 한반도와의 교류 단절은 섬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었습니다. 히데요시의 침략이 실패로 끝난 직후, 소 씨 일족은 조선과의 관계 회복에 힘썼습니다. 히데요시의 사망 후 도쿠가와 막부가 들어서자, 소 가문은 조선 왕조와 신막부의 의견 차이를 조율하기 위해 공문서와 도장을 위조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조선은 1607 년에 정기 사절단을 부활시켰습니다. 조선은 도쿠가와 막부에 12 차례의 사절을 파견하였는데, 이는 주로 쇼군 계승 시기에 이루어졌습니다. 이 사절단들은 모두 쓰시마를 경유해 이동했으며 소 가문이 실무를 담당했습니다. 1811 년의 마지막 사절단은 경비 절감을 위해 에도(현재의 도쿄)까지 가지 않고 쓰시마에서 모든 공무를 수행했습니다. 조선은 도쿠가와 막부가 상시적인 외교 관계를 유지한 유일한 국가였습니다.

약 500 명이 참가한 호화로운 사절단은 소 가문의 화가가 제작한 2 권의 두루마리 그림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한 폭은 17 세기에 제작되었으며, 조선통신사가 쓰시마번의 고관과 호위를 거느리고 에도로 향하는 모습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다른 한 폭은 1811 년 사절단이 소 가문의 성하 마을(현재의 이즈하라)을 행진하는 모습을 묘사한 것입니다. 이 그림 두루마리들은 쓰시마 박물관과 쓰시마 조선통신사 역사관에 복제품과 디지털판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매년 8 월에 이즈하라에서 열리는 '항구 축제'에서는 조선통신사를 재현한 이벤트가 개최됩니다.